

# 전북경제 지속 성장 '쑥쑥'

### 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심 기업유치 매진 산업구조 다각화·일자리 창출에 배가 노력

전북도는 민선6기 이후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다양하고 전략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오면서 매년 130개 이상 기업유치 성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구축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업 중심의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과 기존 기업 증설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도내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 소재·바이오 기반이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산업과 연관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더욱 공격적 나서고 있는 메타 대륙 확대된 투자 유인책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앞으로 구축될 핵심 SOC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향후 기업유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자동화사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 일자리 감소와 침체되는 경기를 빠른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벌어 올 들어 새만금과 군산지역에만 지역공장을 인수한 명신을 비롯한 12개 기업을 유치해 내는 등 7월말 현재 102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도의 이 같은 기업유치 성과는 2013년 이후 세계 주력산업의 실물경기 침체, 수출부진 등 어려운 여건, 비수도권(지방)의 구조적 한계,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업을 찾아 발로 뛰고 두드리면서 이뤄낸 결과여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북도는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위해 지원되는 산업통상지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보한 결과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2015~2018년)의 영예와 더불어 우수 기관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국비 보조율 5% 상향지원)로 지방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민선 6기 이후 기업의 조기투자를 위해 지원되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를 1,872억원을 확보해 80개 기업의 안착에 기여했다.

지난해 지방투자 우수기관 선정 시 전북도가 매년 수상함에 따라 타 시도의 견제가 있었으나, 투자규모, 지

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가 앞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우수 기관에 제공되는 국비 보조율 5% 상향 지원(지방비 5% ↓)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비 54억원을 절감했고 올해는 49억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북도는 (주)효성첨단소재, 로얄캐닌 등 도 투자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조기 투자와 고용 촉진에도 기여했다.

도는 지난 6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내재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민선 6기 이후 매년 1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 확대와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해 대륙 확대된 투자 유인책과 앞으로 구축될 핵심 SOC를 적극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 기업유치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상용 일자리 증대와 산업구조를 다각화·고도화시켜 특정 제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연관성을 높이는 튼튼한 산업구조로 개편한다.

/김진성기자



취임사 하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제30대 국가보훈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전북도, 오늘부터 지진·화재 대비훈련 실시

전북도는 하반기 14개 시·군은 지역특성화 지진 및 화재 대비 훈련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시·군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지진·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주거 취약계층 지진·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내 주민대피와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지진·화재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지진·화재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화재

대피 훈련 시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을 중점 훈련사항으로 실시기로 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모두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당부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지진·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훈련기관은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대비책을 마련하여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 靑, 北 경축사 비난에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 돼"

### "북미 정상 우호적, 한미훈련 후 북미 실무협상 희망적 예측 한·아세안 김정은 초청? 북미 정상회담 합의 도출 있어야"

청와대는 지난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해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 평화경제,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문 대통령의 대화 촉구를 정면

비판했다. 또 '허무한 경축사', '정신구조의 난한 것'과 관련해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지휘소연습 종료 후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 실무협상과 그 실무협상의 결과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현재 숙단할 순 없다"면서도 "그 전까지 북미 정상이 상호 간에 우호적인 제스처들을 취해 왔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망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측이 제안할 의향에 대해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제안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에 관계장관 회의 대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라며 "당시는 관계장관 회의가 가장 유효한 방식이었고, 오늘은 화상 회의를 통한 NSC 상임위가 가장 신속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과 관련한 논의의 진척 여부에 대해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라며 "실무협상이 성과 있게 진행되고 그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군사정찰 위성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 대비 7.6% 인상 정도로 적게 전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속해서 국방 예산 늘리겠다고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노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혁신·사회문제 해결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삼박자 하모니!

### 소셜벤처 대회서 전북 5팀 수상

전북도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2019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에서 전북 5개 팀이 수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회로, 전라·제주권,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등 5개 권역별

로 각각 대회를 열었다.

전라·제주권 대회는 126개 팀이 응모하여 40개 팀이 1차 예선을 통과했고, 권역별 대회에서 전북 5개 팀을 비롯 14개 팀이 입상했으며, 전북은 대학생 아이디어분야에서 1위, 글로벌 성장 분야에서 1위 등 전북에서 5개 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주요 아이디어를 보면, 대학생 아이디어 부문에서 '월업타임'은 갈색 거저리 유충을 이용한 페 스티로폼 처리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제안했고,

글로벌 성장 부문에서 '위노베이션 팀'은 차아 이미지를 분석해 차아의 상태를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5개 팀에게는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전북도지사 상을 수여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문제해결형 워크숍 참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도 받게 된다.

/김진성기자

## 전북도 내 7개 시·군에 자체 생산한 붕어 종자 27만 마리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는 오늘부터 2일間に 걸쳐 내수면 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붕어 종자 27만 마리를 7개 시·군의 하천 및 저수지에 방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붕어 종자는 자체 관리중인 친어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60일 이상 사육관리를 통해 4cm

이상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방류 후 3년 뒤에는 농·어민들에게 약 4.3억 원 정도의 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붕어는 어업인 뿐만아니라 유아 낚시객에게도 인기있는 어종으로 붕어 찜이나 매운탕 등의 요리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붕어죽에는 철분과 칼슘, 불포화지방산 등 각종 영양성

분들이 다량 함유돼 있어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성인병 예방, 위장 강화 및 숙취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수산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과 수질오염 등 서식환경 악화로 붕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성기자

남원시 공고 제2019-1432호

### 군도 6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부석-오촌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도로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구역 결정(안)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정	중 점	주 요 종차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6	부석-오촌	남원시 송동면 장곡리-송삼리	65,511.6	남원시 송동면 장곡리 669-7	남원시 송동면 송삼리 82-7	-	2.6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역간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첨"

5. 도로구역 결정(안)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계제생략"

6.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9. 8. 16. ~ 2019. 8. 30.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7.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9. 남원 시장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